

시리아 IS소행 추정 공격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보복”

“시리아군 내 극단주의자 소행...IS 침투 가능성 미리 경고”

아사드 정권 몰락 미군 첫 사례...관계 정상화 정세영향 주목

13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숨졌다.

공격범은 시리아 보안군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으며 미국 정부는 IS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뒤 1년 만에 미군 측 사상자가 발생한 첫 사례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안정화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함께 야전 정찰에 나선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공격당해 교전이 벌어졌다.

공격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미군 헬기가 부상자들을 알탄프 미군기지로 이송했다. 이 일로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와 수도 다마스쿠스를

잇는 고속도로 통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중동 지역의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CENTCOM)는 성명에서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IS 흐징) 소속 무장괴한 한 명이 매

복 공격을 감행해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전쟁부) 대변인은 미군 사상자들이 IS 격퇴 및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내무부의 누르 에딘 알바바 대변인은 이날 사살당한 공격자가 시리아 내무부 산하 정부군 소속이며, 최근 내무부의 신원조사 과정에

서 ‘타크피리’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고 국영TV에 밝혔다.

타크피리란 IS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가리킨다.

다만 알바바 대변인은 공격자에 대해 “정부군 내 고위직도 아니었고 사령관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신원조사 내용을 두고 최종 조치를 결정하기 직전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알바바 대변인은 또 “정부군이 IS의 침투 혹은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미군을 포함한) 국제연합군에 사전 경고를 전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CJTF-OIR)은 최근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시리아 내 IS 잔당 소탕 등을 위해 연합 군사작전을 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엑스(X·엣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겨냥한다면 미국이 끝까지 추적해 당신을 찾 아니고 가치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中 해경, 남중국해서 물대포 어민 3명 부상·어선 파손”

“中, 낚줄 고의로 절단...어민 표적 위협”

필리핀이 최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필리핀명 서필리핀해)에서 자국 선박을 중국 해경이 되거나 조치하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쏴 어민들이 다치고 어선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12일 남중국해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어선 20척을 향해 강력한 물대포를 쏘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 어민 3명이 다치고 어선 2척도 파손됐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사비나 암초는 중국으로는 센빈자오이고 필리핀으로는 에스코다 암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 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 요원들이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필리핀 어선 여러 척의 낚줄을 고의로 절단했다며 “조류가 강하고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 선원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해경이 이제 평범한 어민을 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행동 기준을 준수하라”고 중국 해경에 촉구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 선박 여타 척이 어업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중국 해경의 거듭된 경고에도 센빈자오 해역에서 도발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경고와 강제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의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니 수마트라섬 대홍수’ 사망자 1천명 넘어...218명 실종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넘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EFE·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천3명이 숨지고 21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수는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

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 52개 지역에서 5천40명에 달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공공시설 1천20곳, 의료시설 219곳, 교육시설 581곳, 종교시설 434곳, 다리 145개 등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한 아체주에서는 60% 가량이 여전히 정전 상태고, 많은 이재민이 몰린 임시 대피소는 식수와 의약품 등 구호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인도 투어 나선 축구스타 메시...경기장 조기 퇴장에 팬들 난동

고가 입장권·정치인 독점 논란

팬들 경기장 파손하며 분노 표출

인도 콜카타에서 열린 리오넬 메시의 경기장 방문 행사가 소동과 난동 사태로 마무리됐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 라나시온, 인포바에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가 인도 관중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예정보다 일찍 경기장을 떠나면서, 현장에 모인 관중들이 조직적의 운동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메시는 콜카타 솔트레이크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

며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경기장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메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으나, 행사는 짧은 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초 메시가 일정 시간 그라운드에 머물거나 직접 경기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일부 관중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100달러(약 15만원)가 넘는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한 관중들 가운데 일부는 분노를 표출하며 좌석을 뜯어내 그라운드로 던지고 물병을 투척했으며 일부는 경기장 내부로 난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장 시설물도 상당 부분 훼손됐다.

한 관중은 “메시를 직접 보는 것이 꿈이었지만, 경기장 내 혼란과 운영 미숙으로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인디아 타임스에 따르면, 고가의 표를 구입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 메시를 보려던 팬들은 솔트레이크 경기장 내에서도 메시를 직접 보지 못했으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볼 수 없었다고 분노했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메시 주변을 둘러싸 시야를 가리고 사진 활영조차 어렵게 했다는 불만도 유포됐다.

시태가 확산하자 인도 경찰은 메시의 콜카타 방문 행사를 주관한 주최 측 핵심 인물을 체포하고 피해를 본 관중들에게 입장권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서면 보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